

大學 캠퍼스의 有機的 構成

任 勝 彬

(서울대 造景學科)

大學은 하나의 작은 都市에 비유할 수 있으며 오늘의 大學은 講義를 위한 캠퍼스에서 住居의 캠퍼스로 변모하고 있다. 새롭게 변모·성장하는 대학의 機能을 수용하기 위하여는 먼 장래를 내다본 캠퍼스 공간의 有機的 構成이 필요하다.

I. 序 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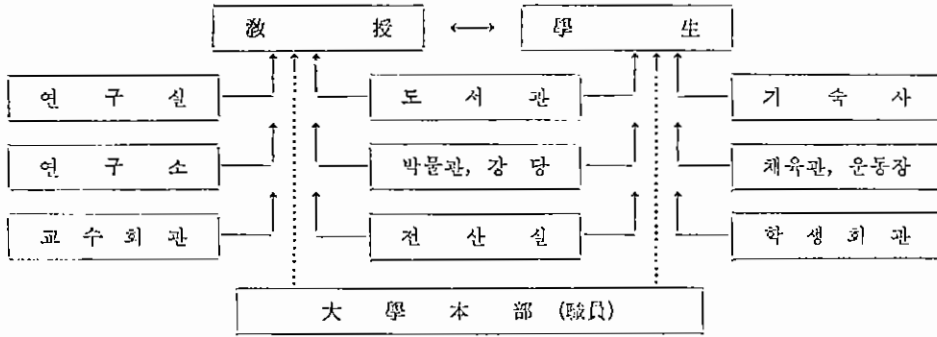
人間은 환경을 창조하며 일단 창조된 환경은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藝術作品은 원치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으나, 대학 캠퍼스는 한번 완성되면 좋으나 싫으나 최소한 수십 년을 함께 생활하여야 한다. 大學人을 위한, 大學의 機能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캠퍼스 공간의 조성은 오늘의 대학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건이다.

II. 大學內的 領域

大學은 하나의 작은 都市이다. 하나의 都市가 住居, 商業, 業務, 工業, 公共, 農業, 公園地域 등으로 구분되듯이 大學도 기숙사, 학생회관, 강의실, 연구실, 대학본부, 실습포장, 연습실, 녹지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대학의 구성원은 教授와 學生,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職員들로 이루어진다. 대학의 機能을 敎育, 研究, 社會奉仕의 셋으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아무래도 敎育이 될 것이다. 대학의 구성원 중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점, 학생을 위한 시설의 절대 면적이 가장 많다는 점을 보더라도 敎育 機能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물론 학생 지원시설의 면적이 많다고 하여, 상대적으로 研究 및 社會奉仕의 기능이 가볍게 다루어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大學의 空間은 커다랗게 教授의 영역, 學生의 영역, 그리고 共有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敎수의 영역에 속하는 공간은 연구실, 연구소, 敎수회관 등이 있으며, 학생의 영역에 속하는 공간은 기숙사, 체육관, 학생회관 등이 있다. 敎수와 학생이 共有하는 공간으로서는 강의실, 도서관, 전산실 등이 이에 속한다(그림 1). 강의실은 敎수와 학생간의 相互作用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도서관, 전산실 등은 상호작용보다는



〈그림 1〉 教授와 學生의 領域

共同利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Ⅲ. 領域間的 연결

大學의 空間이 대학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대학에 존재하는 영역간의 체계적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教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연구실, 강의실, 연구소, 도서관 등이 인접하게 배치되어야 하며 상호 긴밀한 動線體系가 확립되어야 한다.

學生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기숙사, 강의실, 학생회관, 도서관 등의 시설이 상호 인접하게 위치하거나 긴밀한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긴밀한 연결은 平面的 연결일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高층건물일 경우는 垂直的 연결일 수도 있다.

또한 두 지점간의 직선 거리가 멀다고 하여 반드시 연결성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식당이나 기숙사에 이르는 길은 다소 돌아가거나 먼 길이라 하여도 충분한 그늘과 視覺的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된다면 짧게 느껴질 수도 있다. 오히려 다소의 시간적 흐름이 다음 행위에 대한 心理的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두 지점간을 연결하는 등행로의 성격에 맞는 空間構成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문에서 강의실 혹은 연구실에 이르는 길과, 강의실로부터 식당 혹은 운동장에 이르는 길은 그 구성이 같을 수가 없다.

영역간의 연결에서 自動車의 통행에 관한 언급은 빼놓을 수 없다. 西歐와는 달리 우리나라

에서는 아직 학생들의 자가용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西歐의 기준을 따라 캠퍼스 계획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보행 거리가 필요 이상 길어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서울大學校 관악 캠퍼스의 경우를 보면 정문에서 가장 먼 工大 강의실까지의 거리가 약 1.2 km이며, 더우기 경사진 길을 올라가야 하므로 보통 걸음으로 약 15分, 여학생인 경우 약 20分 이상 걸리게 된다. 특히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교역이 아닐 수 없다.

대중 교통수단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고 대신에 자동차 보급률이 낮은 우리나라 도시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정문에서부터 강의실까지의 보행거리, 강의실과 강의실간의 거리를 가능한 한 가깝게 해 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가용차의 통행 및 주차장 시설의 확충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 교직원들의 자동차 보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캠퍼스내의 步行體系와 큰 충돌이 없는 선에서 자동차의 通行路 및 駐車場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美國 캠퍼스의 경우 교직원 주차장, 학생 주차장, 大學本部 앞에는 외래 방문객을 위한 1시간 혹은 30분 주차장 등으로 주차를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체계가 앞으로 우리나라 캠퍼스의 실정에 맞도록 갖추어져야 하겠다.

Ⅳ. 캠퍼스의 類型

大學의 캠퍼스는 美國의 예를 보면 都市型과

郊外型으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다.

郊外型은 비교적 대학의 경계가 명확하며, 캠퍼스내가 동질적인 하나의 單位로서 일체감을 지닌다.

都市型은 都市內의 몇 개의 블록을 학교가 차지하여 학교와 주변 건물과의 경계가 모호하다. 또한 통과 교통이 학교 내부를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외부인도 자연스럽게 통과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의 價域이 불분명하여 어느 건물이 학교이고 어느 건물이 일반 건물인지 구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과 같이 캠퍼스를 두 가지의 類型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우리나라의 캠퍼스는 대부분이 郊外型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캠퍼스는 대부분 담장이 있으며 수위가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캠퍼스 공간은 외부와 명확한 구별이 지어지며 캠퍼스 內部가 同質性 및 單一性을 지닌다.

美國의 대학이 대학시설 개방의 원칙에 따라서 도서관 및 캠퍼스를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음과 대조적이다.

V. 캠퍼스의 擴張

大學은 都市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성장·변모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에서는 綜合大學으로의 승격을 위하여, 또는 더 많은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캠퍼스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하여는 大學空間의 擴充이 필수적이다.

대학 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주변에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平面的 成長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평면적 확산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平面的 擴散은 기존 대학 공간의 재편성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존 시설 및 새로운 시설간의 재분배 및 이전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고 새로운 부지가 없어도 대학 공간을 擴張할 수 있는 방법은 高密化 혹은 高層化를 통해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美國 Virginia Tech.의 경우에도 학교 시설의

부족으로 기숙사, 교실 등의 신축 혹은 증축이 불가피하였는데 평면적 확산은 이미 많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교실간의 평면적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더 이상의 평면적 확산은 學生들의 步行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대학본부에서는 소위 “캠퍼스 高密化 計劃 (infill plan)”을 세워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 고밀화 계획은 기존 건물 사이의 빈터에 기존의 건물과 연결하여 증축 혹은 고층화함으로써 캠퍼스 기존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캠퍼스 공간의 재편성 혹은 시설간 이전 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캠퍼스내의 보행 거리가 평면적 확산에 비하여 짧아지므로 효율적 동선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유리하다.

都市에도 自然發生的 都市와 計劃된 都市가 있듯이 大學의 캠퍼스도 건물 하나 혹은 둘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 종합대학으로 성장한 自然發生的 캠퍼스와, 처음부터 종합계획이 이루어져서 단시일에 완성된 計劃된 캠퍼스가 있다.

前者의 예로는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학 캠퍼스들이 대부분이고, 後者의 경우는 새로이 신설된 대학의 캠퍼스가 이에 속한다. 서울대학교와 같이 오랜 역사를 지녔으나 캠퍼스 이전을 통하여 새로이 計劃된 캠퍼스를 건설한 경우도 있으며 최근 많이 건설된 地方分校의 경우도 計劃된 캠퍼스에 속한다.

高密化를 통한 캠퍼스의 확충은 주변으로의 평면적 성장이 어려운 自然發生的인 캠퍼스에 주로 해당된다. 그러나 계획된 캠퍼스라 하여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와 같이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경우에는 高密化 혹은 高層化를 통한 캠퍼스 확충이 바람직하다.

VI. 캠퍼스의 景觀要素

캠퍼스는 젊은 학생들의 꿈과 낭만을 키우는 場이다. 캠퍼스 景觀에서 건물은 역시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겠으나 건물 주위의 廣場, 彫刻, 연못, 분수, 잔디, 樹木 등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

캠퍼스내의 廣場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첫째로 통행로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많은 사람의 통행을 원활히 하여 주고, 둘째로 넓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前者의 경우는 캠퍼스내 領域간의 효율적 연결을 위한 필연적인 경우이다. 大學空間의 이용 패턴은 일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강의 시간과 강의 시간 사이, 등·하교 시간, 축제 등 학생 행사시에 이용자들이 몰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정 시간에 영역간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는 통행의 교차점에 충분한 면적의 廣場이 필요하다.

이러한 廣場은 통행을 위한 단순한 기능을 지닐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象徴的 意味가 여기에 부여될 수도 있다. 상징적인 의미를 높이기 위하여는 조각, 분수, 혹은 기념탑 등이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성을 지닌 광장은 Lynch가 말하는 소위 캠퍼스의 '이미지(imageability)'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이미지라 함은 캠퍼스 공간의 構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이용자들이 쾌적함, 친밀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뜻한다.

이와 같은 象徴的 空間은 한 캠퍼스내에서 한 곳 혹은 두세 곳 정도면 충분하지,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이미지性'이 떨어져서 이용자들의 캠퍼스에 대한 認識的 構造에 혼란을 초래한다.

象徴的 空間은 반드시 보행 광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원활한 통행이라는 기능적인 면을 떠나 순전히 視覺的인 상징성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大學本部 앞의 넓은 광장, 혹은 캠퍼스 중심의 廣場 등은 반드시 보행자가 많아 서라기보다는 캠퍼스의 心理的 求心點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닌다.

캠퍼스에 따라서는 野外에 彫刻을 전시하고 있는 곳을 볼 수 있다. 야외 조각은 캠퍼스의 분위기 조성에 매력적인 요소로 등장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조각을 캠퍼스 전체에 分散하여 배치한다면 이는 오히려 조각 공해를 초래할 수도 있

다. 彫刻庭園을 한두 군데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면 캠퍼스내에 또 하나 새로운 領域을 조성하게 되어 캠퍼스가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캠퍼스를 보면 물의 이용에 다소 인식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물론 연못, 분수 등은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르는 점이 있으나, 물이라는 景觀要素는 그러한 어려움을 능가하는 매력적인 요소이다. 물은 여타의 경관 요소와는 對比가 되는 독특한 질감을 지니고 있으며, 강한 平面的인 要素가 되며, 또한 反映의 효과로 인하여 보는 사람에게 깊이 있는 즐거움을 준다.

따라서 예산에 다소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연못 혹은 분수를 적극 도입함은 캠퍼스 공간을 더욱 매력적이며 흥미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어느 캠퍼스이고 넓거나 좁건간에 잔디 공간을 지니지 않은 곳은 없다. 잔디는 地表에 덮인 野外 카펫이라고 불려도 좋을 것이다. 얼드럭 독서하거나, 또는 둘러앉아 담소를 즐기거나, 또는 공던지기를 하기에 좋은 곳이다. 우리나라 캠퍼스의 잔디밭은 대개의 경우 보는 잔디밭이지 이용하는 잔디밭이 아니다. 잔디 관리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학생들 이용을 금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다고만 말할 수 없다. 잔디는 어느 정도는 밟아주어야 성장에 유리하다. 따라서 모든 잔디밭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운반제로 개방을 한다든지, 새싹이 돋는 봄철에만 제한한다든지 하는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보는 잔디밭에서 이용하는 잔디밭으로 개념을 바꾸어나감에 바람직하다.

최근들어 캠퍼스 造景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나무들이 심어지고 있다. 캠퍼스내에 植栽를 하는 데 있어서는 生態的 고려를 통한 樹種 선택, 機能的 고려를 통한 식재 위치의 선택, 美的 고려를 통한 植栽構成이 이루어져야 한다.

식재를 통한 캠퍼스 공간의 구분 혹은 다양한 공간의 조성은 많이 이용되는 技法이다. 예를 들면 文學部에 이르는 길은 은행나무가 열식된 은행로, 理學部에 이르는 길은 단풍나무가 열식된 단풍로를 조성하고, 혹은 果樹로 조성된 밤나무 동산, 감나무 동산 등을 조성함은 캠퍼스의 이

미지 및 識別性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캠퍼스 전체를 樹木 園化함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특히 캠퍼스내에 林野가 다소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樵採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다양한 수종을 도입하여 樹種의 生態的 특성에 맞도록 식재하여 캠퍼스 전체를 하나의 自然學習園으로 꾸밈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수목 전시관 및 안내관을 부설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Ⅶ. 住居로서의 캠퍼스

우리나라의 캠퍼스는 최근에 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캠퍼스는 단순히 講義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인식되어 왔으나 점차 기숙사 시설이 보편화되고 야간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住居의 캠퍼스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이는 캠퍼스 이용이 24時間 이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숙사뿐이 아니고 도서관, 전산실, 교수 연구실 등이 밤 늦게까지 이용되고 있는 현실정을 볼 때 住居의 캠퍼스는 이미 먼 장래의 일이 아니고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변모하고 있는 오늘의 캠퍼스는 강의실, 기숙사, 도서관 등의 기본적인 시설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직원 및 학생들의 住居에 불편이 없도록 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후생시설로서는 우선 저녁 늦게까지 열려 있는 식당, 일상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매점, 그리고 방과후에 이용 가능한 수영장 등이 포함된 실내 체육관, 운동장 등이 있으며, 더욱 바람직

하다면 오락장, 영화관 등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야간 조명에도 보다 많은 고려가 관리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美國의 경우 이러한 후생시설이 앞서 언급된 都市型 캠퍼스인 경우 캠퍼스와 인접한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캠퍼스가 대부분 郊外型이고, 民家와 떨어져 독립된 경우가 많으므로 캠퍼스 종합계획에서는 이들 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요즘 신설되는 캠퍼스의 경우 地價 등의 이유로 기존 시가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는 캠퍼스가 많은데 이럴 경우 인접지에서의 지원 시설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캠퍼스내에서 이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후생복지시설을 완비함으로써 캠퍼스의 24時間 이용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서 大學의 質的 發展이 이루어질 것이다.

Ⅷ. 結 言

大學 캠퍼스는 大學人들의 상호작용의 場이며 동시의 住居의 場이다. 캠퍼스는 비학 구성원 및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개의 領域으로 구분되며 이들 領域은 有機的 연결 체계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캠퍼스는 외부와 격리되어 同質性이 높으며 하나의 都市와 유사한 체계 및 특성을 지닌다. 캠퍼스는 미래의 주인이 될 학생들의 꿈과 낭만을 키우는 場이며, 따라서 캠퍼스의 공간 구성은 높은 이미지성, 다양성, 상징성, 흥미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캠퍼스는 24시간 이용되는 住居의 캠퍼스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생복지시설의 완비는 필수적이다. *